공동체 삶의 묘법은 '상대 인정'

"남 즐겁게 하면 나 저절로 편안"

> "대가 치르지 않고 얻으려 하고 잘 안되면 남탓하기 때문에 사회가 점점 혼탁"

못되게 쓰면 안되는 법이지요.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다 보면 감정이 뒤죽박죽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죽고 타인도 죽고 다 죽게 되지. 그런 죽은 사회가 될 것이 아니라 활력있고 영원하게 너와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심에 있습니다.

나는 잘났고 나는 지식이 있고, 남들은 모른다 그런 생각이 겹쳐지고 겹쳐지고 그것이 쌓인 것이 제가 잘났다는 우월감, 아상입니다. 그 생각을 놓아버리세요. 작은 자기를 버리고 큰 자기를 찾으세요. 이 마음은 넓고 광대하고 크고 영원한 것이니 습관적으로 익혀논 자존심을 버릴때 도리어 큰 도량을 갖게 됩니다.

―시대가 혼란하고 어지러우니까 불안하고 갈피를 못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때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중심을 잡고 근본을 지켜나가는 일은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세태에서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요.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마음을 다룰 수 있어요. 마음이란 것은 검은 것도 아니요, 흰 것도 아니요, 냄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형의 것이예요. 통상적으로 마음이라 하지만 불교차원에서 말하자면, 즉 부처님에게 비유하면 청정법신비로자나불이 마음이예요. 일체 중생의 마음이예요. 청정법신비로자나불체는 어느 사람 안가진 사람 없고 어느 중생 안가진 중생이 없어요. 마음에는 자유가 끝이 없고 한계가 없지요. 〈화엄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만법의 근원이요, 일만가지 기묘한 모든 것을 창출해 내는 묘법의 원리라고. 모든 것을 창출해 내는데 마음이 없으면 안되지요.

그래서 이 마음은 넓기가 끝이 없고 어디까지 하는게 아니고 아무리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달마스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지요. "마음 마음 마음이여,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으니."

마음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를 하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구나 하고 마음을 잘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란 한량없이 넓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구나 알면 통일도 가능하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적을 없앨 수도 있지만 적과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나아가 그 적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지요. 본마음은 이렇지만 인간은 업보로서 육체를 타고났기에 업을 짓게 되니, 수행을 해 마음을 닦아 마음이 아무것에도 매이지 않게되면 저절로 청정해져서 해탈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몸은 불행할 수 있는 세가지 결점이 있어요. 그 첫째가 생명을 죽이는 살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다 살려하는데 살생을 하지 말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이 첫째 계율이지요. 또 몸뚱이 가지고 하는 악한 짓이 도둑질과 사음(邪淫)입니다. 자기 몸뚱이지만 자기 몸을 살생과 도둑질과 사음에 빠지지 않도록 추스리기가 어려워요. 꼭 남의 것을 훔쳐야만 도둑질이 아니예요. 투기라든가, 자기 분수 이상의 횡재를 노리는 것도 해당합니다. 또 그저 배고픔을 면할 정도만 먹어도 되는데 배가 터지도록 과식하는 것도 일종의 도둑질이라 할 수 있어요.

입으로 짓는 네가지 구업이 있어요. 입이란 게 그냥 구멍만 뚫려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문제가 다 여기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정어(正語)를 해야 돼요. 악구(惡口) 즉 욕을 하고 험담을 하는 것도 안돼요. 우리 한국사람들은 보통 말할 때도 맞아죽을 놈, 빌어먹을 놈 하고 욕을 하는데 아무리 별 뜻 없이 하는 이러한 욕에도 과보가 붙기 마련이예요. 양설(兩舌) 즉 이간질시키는 말, 그리고 기어(綺語) 말을 교묘하게 꾸며 비단같이 해서 사람을 속이는 일인데 아주 나쁘지요.

몸의 세가지 입의 네가지 이것만이라도 항상 삼가하도록 주의해 보세요. 거창하게 멀리 생각할 것 없어요. 이것부터 지키고 닦는다면 마음이 순화됩니다.

―불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오래된 습기(習氣) 습관(習慣) 탓인지 인욕, 보시 등을 늘 이야기하지만 알고있는 지식과 실천은 따로따로 인 것 같아 보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보통 남에게 물건을 주는 것을 보시라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부처님의 걸림없는 법을 설해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보시예요.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편케 해 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나아가서 한 물건도 내가 가진게 없다는 것, 다시말해 한 물건도 사람 사람이 가진게 없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보시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예요. 진정한 보시란 아무 것도 일체중생의 것이 없다는 걸 알고 마음에 구하는 바 없이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물건이 없어도 무식한 사람도 보시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힘이 부족해서 물건을 들고 가다가 팔이 아파 허덕허덕 할때 곁아가 짐을 들어주는 것, 어떤 사람이 길을 물을 때 내가 갈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이 알 수 있게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는 것도 소중한 보시가 됩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한가지씩 찾아서 보시를 한다면 이 사회는 바로 정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가 공덕쌓는 일인줄 알면서도 그것은 불경속에 있는 말이라고만 알고 내 생활에서 실천 못하는 것이 문제지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화해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55년동안의 적대감과 대치를 접고 남북이 서로를 알고자 하고 한걸음 다가서고 있는 이때 국민들이 가져야 할 마음자세를 일러주십시오.

▲우리 국민에게는 통일이 절대과제지만 의식전환없이 준비없이 통일이 급속하게 된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부터 통일이 돼야 합니다.

국민들도 북한 사람들을 남이 아니고 우리 식구 한 민족, 같은 피를 나눈 겨레로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이 굶어죽는다 하니까 양식보내주고 비료 보내주고 하는 것은 참 잘 하는 일이예요. 과거에는 서로 적대하는 악순환속에 동족끼리 피를 흘리고 원수가 되었지만 그동안의 어두웠던 길을 청산하고 남쪽이고 북쪽이고 따뜻한 동포애로 화합이 돼야 통일이 될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를것도 없어요. 익을 때를 기다려야지.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때 통일은 오게 마련입니다.

또하나, 우리 나라를 이렇게 보존해 오도록 희생한 선조들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이준 윤봉길 안중근 의사 등 조국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존립하는 겁니다. 정치·경제·공무원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무슨 일을 할 때 과거를 한번씩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 나라 지도자들 좀 청렴했으면 싶어요. 이나라를 지금까지 지켜 오는데 무수한 선각자 애국자들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 애국선열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청렴하게 살았으면 싶어요.

근본이 흔들리면 안돼요. 근검절약하고 본분 지키면서 제 할일 열심히 하면 잘 살게 마련입니다.

대담=이경숙 부장
(gslee@buddhapia.com)

◇내 주위 사람들로부터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할때 나도 행복해 진다고 강조하시는 화산스님.

지묵스님의 스님이야기

■천재 스님

스님을 알게 된 때는 치문반 시절이었으니까 한 스무 해가 넘는다. 그가 천재가 되기까지 내력은 잘 알 수가 없다.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천재였는지 아니면 후천적인 천재인지는 잘 알 수가 없다. 다만, 단식을 두세 차례 성공하고부터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다.

물만 매일 마시고 지내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한 결과 놀랍게도 불망지(不忘智)에 가까운 기억력이 되살아났다는 것이다.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단식을 마친 그는 얼굴에서 환희심에 찬 미소를 잃지 않게 되었다. 번뇌라고는 한 티끌도 없는 모습이었다.

T.V 프로에서 천재 소년 등을 본 적이 있으나 실제로 함께 지내보기는 처음이었다. 책을 한 권 외우는 것은 예사였다.

서장(書狀)을 한 권 끝내는 날에는 서장을 천수경 염불하는 속도로 무척 빠르게 외우기 시작한다. 아침부터 그렇게 부지런히 외운다. 옆에서 보기에도 놀라울 정도였다.

얼굴도 준수하게 생겼고 체격도 건장한 편이었다. 군산에서 학교를 다닐 때에는

책 한권 외우는 일 예사
일본서 공부하며 환속

야구 선수였다고 한다.

무슨 마군(魔軍)의 시샘이 그리도 많았는지. 착하고 천재인 그에게 마군이 늘 대기하고 있는 듯 하였다.

무위법(無爲法)에 들려는 찰나, 그때마다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마군중(魔軍衆)이 나타났다는 불보살의 본생담 이야기와 비슷했다.

그가 어느 날 가야산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사라진 때에는 대중들이 산을 헤매며 찾느라고 부산스러웠다. 수색작업을 하다가 한 스님은 바위에서 미끄러져서 부상을 입고 등에 엎혀서 절로 내려왔다. 그는 산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떠났다. 시계를 책상 위에 풀어놓은 채로 그냥 떠났다. 이틀 후 그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바위 아래서 좌선을 하고 묵묵히 앉아 있는, 도심(道心)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다.

이제 보니 대중이 괜히 소란을 피운 것인지도 모른다. 공부를 하려는 순수한 생각 밖에 없는 그를 세속법으로 이러니 저러니 하고 왈가왈부 야단친 셈이다.

그게 그의 특성이었다. 막힘이라곤 전혀 없었다. 옳으니 그르니 하고 따지는 걸 떠난 게 천재의 머리인가 본다. 시시비비는 이미 그의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는지도 모른다.

"순천 송광사 보조국사의 도량에 가서 참선을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자 이번에는 웃옷과 신발을 벗은 채 걸어서 출발을 하였다. 미친 스님이 아닌가 하고 비구니 스님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서 내려서 신발과 웃옷을 갖추어 주었으나 그는 또 그걸 오래 유지하지 못하였다. 런닝 셔츠 바람에 맨발로 걸어갔다. 아마 부처님께서 살아 생전에 맨발로 걸어다니신 걸 생각한 것일까. 세상을 걸림 없이 사는 법을 어느새 익힌 그는 그렇게 지냈다.

"중이 가사 장삼도 갖추지 않고 제 발우도 없이 방부를 드릴려구 왔어?"

송광사 주지스님으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는 할 수 없이 다시 해인사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 일로 해서 강원생활을 계속하지 못할 뻔하였다. 은사스님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대중공양을 내고 대장경을 한질 기증하고 해서 간신히 넘겼다.

강원을 마치고 바로 중강(仲講) 스님이 되어 명강의를 하게 되었다. 학인들로부터 스승인 강주(講主) 스님에 못지 않다는 평을 받았다. 뛰어난 머리가 주위를 놀라게 한 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에는 도서관에서 일본어를 독학으로 공부하여 동경대학에 거뜬히 입학하였다. 모두가 혀를 내두르고 한 동안 입을 다물 줄 몰랐다. 실력이 남달리 우수해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스님이었다. 하나같이 찬탄을 해 마지 않았다.

그림 · 문병성

법상 위에서 상단 법문을 하신 성철스님께,

"법문을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고 법담을 던진 이가 바로 이 천재스님이다.

"왜? 이성철이다, 이놈아. 몰랐냐?"

하고 성철 스님이 급히 이 말을 던지고 법상 위에서 내려오신 적이 있다.

천재 스님에게 왜 그리 마군중이 많았을까. 그가 장학생으로 박사과정을 거뜬히 마치고 귀국할 때에는 이미 양복이 그의 어깨 위에서 드리워져 있었다. 독일 아내를 둔 거사의 모습이다. 동양 문화에 흠뻑 빠진 그의 아내 역시 일본에 유학온 독일 여학생이었는데 경제적으로 천재스님에게 스폰서 역할을 하였다나 어쨌다나.

종립 대학 강단에 설 때에는 너무 일찍 빠른 출세 길에서 역시 왕따를 당하는 격이 되었다. 지금은 독일에서 지낸다던가 어떻다던가 하는데 하여간 아까운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된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화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순선식(2개월 50만원), 순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천신양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들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오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대구여래한방)

의료법인 효성 양방 · 한방병원

문의전화 : (053)655-2227, (011)808-8880
(이사장 비서실) ☎ (052)254-2600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세사미놀」성분을 대량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불치병(병명을 못찾는 분), 기관지 천식, 위장병, 정신 질환, 간질, 중출, 고혈압, 당뇨 치료문의

무료진맥 · 완치!!